

생산 줄이고 직접 유통으로 경영부실 막는다.

□ 취재 / 김용화 부장



△ 지난 3월 1일에 개점한 유통센터에서는 병아리부터 닭고기까지 일괄 공급을 한다.

지만 성사가 되기는 커녕 불신만 가중시키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환율이 급등하면서 사료가격은 50%선까지 상승하고,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데 반해 병아리를 생산하는 부화장들은 서로가 의아해 하면서 반값은 예상과 어음으로 수금을 하는 악순환이 계속됨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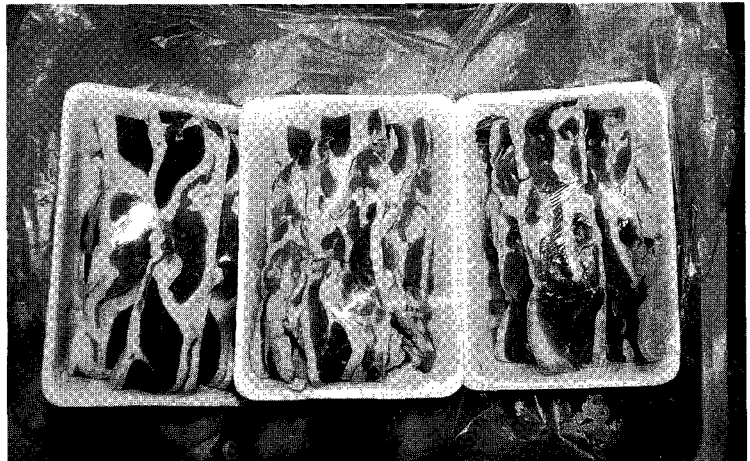
금 융위기의 여파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지난 해 11월 이후부터 육용종계업자들은 닭고기 소비격감에 따른 입추기피로 병아리 값이 사실상 생산비보다 반으로 떨어

져 총체적으로 부도위기로 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용종계입식은 꾸준히 이어져 어려움을 더 자초했는데 생산조절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시도가 되었

라 종계업계는 참담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었다. 죽전부화장(대표 이순오)은 충북 보은에서 육용종계 4만여 수 이상을 사육하던 종견 부화·종계장으로 자타가 공인을 했

던 수준이었다. 그러나 부화인들간에 생산조절이 늘 구호에 그쳐 경영다변화를 시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몇 년전부터 유색육계 쪽으로 눈을 돌려 토종닭 생산을 위한 품종을 수입하여 농가에 보급시키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또한 오리시장이 커짐에 따라 종오리도 수입하여 공급을 하게 되었지만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유원지 등의 주 소비 식당들이 쇠퇴하자 다시한번 시련을 겪었다.

다시 옆친데 댁친격으로 금융위기로 인하여 소비가 얼어붙어 농가들까지 사라지는 현실을 접하고 병아리만 생산하여 판매를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사육도 하고 판매까지 연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작업



△ 토종닭고기를 발골하여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제품

을 해야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 지난 3월 1일에 대전시 동구 소재동에 죽전부화장 직영매장인 죽전축산물 유통센터를 개점하게 되었다.

무리하게 종계사육을 강행하기보다 50%를 줄이고 대신 보급한 농가에서 닭을 구매하여

리도 1일 500여수 이상을 판매하고 있는 개가를 올리고 있다.

이미 부화장을 경영하면서 구축된 영업망을 바탕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남까지 납품을 하는데 수퍼, 일반 음식점, 상인을 상대로 공급을 하고 있다.

도계품, 발골육(음식점용, 가정용), 오리를 비롯 병아리까지 공급을 하는데 토종닭이라 이름을 붙인 레드스타 육계의 경우 1일 2천여수가 감계 공급선을 확보하였고, 오

농가에서 닭을 구매할 때에도 현금으로 즉시 결제를 하고 닭고기를 팔 때도 현금거래를 하여 내실을 기하고 있다.

토종닭의 경우 단순 도계품이 아닌 발골육으로 제품화하여 구워먹는 식습관에 익숙한 우리나라 풍토에 맞게 만들어 식당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투자비는 7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주로 건물 임대료이고 2



△ 죽전축산물 유통센터 이순오 대표

천수를 비축할 수 있는 냉장·냉동고가 갖추어져 냉장육과 냉동육의 가격차가 수당 1천원대가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요에 따라 냉장육과 냉동육을 방출하는 영업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토종닭은 대개 10주까지 사육하여 1.8~2kg으로 출하하는데 생산비는 3천원선에 맞추고 납품시에는 1.3kg 도계품을 기준으로 1,800원에 거래되던 것을 현재 4천원선까지 끌어올렸다.

결국 가격이 낮아 많은 농가

들이 도산했는데 이처럼 부가 가치를 높여 농가도 살고 부화장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특성을 고려하여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빈 종계장에 20만수를 직접 사육할 예정이며, 품목도 다양화시켜 토종삼계탕, 백숙, 영계백숙은 물론 옷엑기스를 스프처럼 별도 포장하여 출시할 예정이다.

오랫동안 부화·종계업에 익숙했던 이순오 사장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경영다변화를 선언하기까지는 갈등도 많

았다.

IMF시대에 종계업자간에 물고 물리는 비생산적인 경쟁으로 서로가 공멸하는 것보다 비록 “닭장사”라는 이름은 불을지 몰라도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유통에 뛰어난 이상 과도한 투자보다는 직접생산하여 유통까지 할 수 있어야 생존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말에 죽전축산물유통센터는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종계인의 일면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연락처 : 042-672-5400) **양계**

월간양계 무료증정 협찬금 인상 안내

회원의 권익보호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본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월간양계」가 최근 IMF 시대를 맞이하여 발간에 따른 제작비(종이, 필름) 등이 대폭 인상되어 '98년 4월호부터 무료증정 협찬금을 부득불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기 정기구독 협찬자에게는 기간만료시까지 그대로 우송되며 신규협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조정내역 : 연간 35,000원 이상 → 연 50,000원 이상

구독신청 : 전 화 - (02)588-7651(대한양계협회 홍보부)

은행계좌 - 농협 097-01-000953(대한양계협회)

* 연락이 없어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시어 송금후 수신처 주소를 반드시 연락바랍니다.